

치자꽃무늬 매병



중국 자주요 도자 명품전 후백의향연

아름다움

멋

도자예술



'화장도 도자기' 1급 유물 포함 117점 구성 28일~ 8월 18일,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실

자주요(磁州窯)는 중국 허베이성 환단시즈 현에 위치한 중국 북방 최대 도자기 가마다. 남북조시대부터 오늘날까지도 도자기를 만들어 왔으며 '화장도 도자기'가 대표적이다. 거친 태토 위에 하얀 화장토를 발라 표면을 깨끗이 단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선명하면서도 다양한 장식 기법을 가미해 독특한 멋이 두드러진다. 중국 도자 예술의 아름다움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자주요 도자 명품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중국 자주요박물관(관장 자오쉐핑)과 공동으로 특별전 '중국 자주요 도자 명품전-후백의향연'을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보급에 해당하는 중국 1급 유물을 13점을 포함해 중국 자주요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117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됐다. 1부 '가마에 불을 지피다-고대의 자주요'에서는 자주요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남북조시대부터, 자주요 특징인 화장도 도자의 시원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수당대까지를 살펴본다. 자주요에서는 남북조시대 말기인 동위(東魏:534-550)때부터 청자를 생산했다. 수당대에 이르러서는 유약 색이 다양해지고 표면에 문양을 찍어 나타내는 등 그릇 표면이 다채로워졌다. 2부는 '후백의 절정-송·금·원의 자주요'라는 주제로, 자주요 도자 특징이 드러나 있는 송·금·원대의 특징을 기법별로 살펴본다. 중국 도자는 북송(北宋:960-1127) 시기부터 크게 발전했는데 자주요 도자 역시 이 시기에 가장 융성했다. 자주요 도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표면에 화장토를 발라 단장하는 '백토분장'이다. 도자기 표면을 깨끗하게 단장해 무늬를 새기는 기법으로, 하얀 바탕에 검은 안료를 써서 자자자재로 그림을 그려 넣는 '백지흑화(白地黑畫)' 도자기가 대표적인 생산품이다. 이 시기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시를 적어 넣는 등 표면 장식이 화려하게 발전했다. 3부는 자주요의 특징적인 기종인 도자기 배개를 조명한다. 도자기 배개를 베고 꾸민 이야기 기인 '한단의 꿈'이라는 옛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단의 자주요는 도자기 배개와 깊은 연관이 있다. '민중의 꿈-도자기 배개'를 주제로 자주요 장인들의 삶과 도자기 기물과의 관련성을 들여다본다. 자주요 도자의 변화상도 엿볼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면서도 전통을 유지하는 도자의 변화상을 '은은한 여운-명·청·20세기의 자주요'라는 주제로 살펴본다. 명(明:1368-1644) 시기에는 자주요 생산의 중심 가마가 평성진 근처로 이동하면서 연한 갈색으로 그림을 그린 도자기가 유행했다. 청(淸:1616-1912) 시기에는 중국 남부 경덕진의 청화백자가 유행해 자주요 장인들도 코발트 안료를 사용한 청화백자 생산에 뛰어들었다. 이때의 도자기는 새로운 재료, 전통적인 검은 색과 갈색 안료를 함께 사용해 독특한 미감을 보여준다. 전시의 후반부에서는 오늘의 자주요 도자의 면면을 볼 수 있다. 제작 기법을 보여주는 영상과 함께 현대 자주요에서 만들어진 재현품과 재료를 함께 소개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박물관에 소장된 자주요 도자도 함께 소개한다. 원대의 무역선

인 신안선에는 2만 여 점이 넘는 중국 도자기가 실려 있었다. 이 가운데는 자주요 도자도 포함돼 있어, 당시에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수출되는 무역품으로 자주요 도자가 선호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펼쳐진다. 6월 20일(오후 2시)에는 김영원 전 국립전주박물관 관장의 '중국 도자의 역사와 자주요'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7월 5일(오후 1시)은 국내·외의 저명한 도자사 연구자를 초청해 국제학술대회 '한·중·일 분장자의 현황과 성격'을 개최한다. 이어 7월 13일(오후 3시)에는 '박물관에서 만나는 중국 전통 음악'이라는 주제로 중국 전통 악기 연주회가 준비돼 있다. 전시 및 다양한 행사는 모두 무료다. 김승희 관장은 "세계인의 축제가 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맞춰 열리는 이 전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의 포용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570-7034.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찬수 초대전, 31일까지 LH휴광갤러리

목판(勝玩) 최찬수 초대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 본부 1층 LH휴광갤러리에서 열린다. 오랫동안 서예 작업을 해온 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인물 채색화와 다양한 풍경 작품을 선보인다. 화사한 복숭아꽃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도화풍경'을 비롯해 상쾌함이 느껴지는 '옥정호 상류', 맑은 물빛이 인상적인 '한려수도' 등 풍경화는 캔버스에 유화로 작업했으며 '봉황도', '까치호랑이', '군상도', '군학도' 등 민화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또 꽃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등 다양한 인물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도화풍경'

원광대 서예문화학과 석사 과정을 마친 최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광주시 미술대전 등에서 특선 입상했으며 현재 인체드로잉회, 원광대사경회, 한국화실사회, 광주수채화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3100. /김미은 기자 mekim@

감각적인 회화 작품들... 김광례 작가 개인전 '당신의 부활'

6월7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

조각가 김광례 작가의 작품은 죽음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주제로 한 것들이 많다. 지난 2013년 첫번째 개인전에선 FRP로 만든 해골과 정강이 뼈 등을 낚은 목선에 실은 '그대 이제 잘 가라'라는 강렬한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조각가로 두번의 개인전을 열었던 김 작가가 이번에는 회화 작품만을 모아 전시회를 연다. '당신의 부활-모든 사연들이 다시 살아난다'를 주제로 오는 6월7일까지 광주시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개인전 역시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위무하는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은 한지와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한 '꽃배'다. 3m60cm에 달하는 대작인 이 작품은 모든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꽃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년여에 걸쳐 작업했다. 이 작품은 오는 7월1일부터 30일까지는 장성공공도서관 뜨락미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작품 소재로 좀처럼 쓰이지 않는 '도마뱀'을 주제로 한 그림들도 여러 전시된다. 팔리핀에서 체류하던 당시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함께

생활했던 도마뱀을 통해 '생의 의미'를 다시 주목하게 된 김 작가는 얼핏 아이들의 그림처럼 보이는, 강렬한 색감의 도마뱀을 그려냈다. 또 화면을 박차고 나올 것같은 역동적인 말과 겨울을 나타내는 할머니의 부은 발목도 작품의 소재가 됐고, 검붉은 하늘과 대지가 인상적인 풍경화도 선보인다. 조각 작업 당시에도 재료의 한계를 두지 않고 실험을 해온 김 작가는 회화 작업에서도 다양한 느낌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대부분 나이프로 작업한 작품들은 활달하고 거침없는



'꽃배'

느낌의 원시적인 매력에 물어나며 강렬한 색감 역시 인상적이다. 당초 회화를 전공했던 그녀는 좀더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어 호남대 조소과에서 정식으로 조각을 전공했다. 광주시미술대전-전남도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했으며 호남조각회, 청동회, 한국조각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한편 김 작가의 대표 설치 작품 '그대 이제 잘 가라'는 오는 8월부터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다시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문의 062-410-6620. /김미은 기자 mekim@

영화 '김군' 강상우 감독과의 대화 6월 1일 오후 3시 20분 광주극장



오는 6월1일 오후 3시 20분 광주극장에서 영화 '김군' 상영 후 강상우 감독과의 대화(GV) 시간이 마련된다. 독립기획자 임인자 '소년의 서' 대표가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에서는 다큐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연출한 진모영 감독도 함께한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김군'은 2015년 지만원씨에 의해 북한특수군 '제1광수'로 지목된 한 시민군이 평범한 광주 시민이었음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사진 한장을 단서로 관련된 시민들의 증언을 모으는 전개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 제44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4-585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IPALG waterproofing services. It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and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Below the banner are several smaller images of buildings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완벽한방수', '내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and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is provided,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blog links.

Advertisement for Beltone hearing aids. It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SINCE 1982' and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Below the banner are several images of hearing aids and a list of awards including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6 혁신기술상 수상', and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A large graphic of an ear is shown in the center. Text on the right lists benefits: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is provided,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blog links.